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지난 13일과 14일에 공동체 김장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 모임이 오후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졸업여행이 17일(월)~21일(금)까지 대만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23일(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재훈(생일) 목사 · 장영미 전도사 가정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6호

2025년 11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가 아닌 고통에의 동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선단에 탑승한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27)가 이스라엘군에게 구금됐다 풀려난 후, 그를 파송한 개신교 평화 운동 단체 '개척자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계에서는 제법 인지도가 있는 편이지만, 개척자들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과거 '샘물교회 사태'로 대변되는 개신교계의 '공격적·정복적 전도 활동'을 떠올린 것이다. 하지만 개척자들이 평소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오해임을 안다. 개척자들은 '선교 단체'가 아닌 '평화 봉사 단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중략) 개척자들은 1993년 '세계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사역'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1999년 동티모르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사태를 1년간 모니터링한 후 현지에서 평화캠프와 평화학교를 열었다. (중략) 개척자들은 이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전쟁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통을 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강호 박사는 "개척자들의 사역은 무력 분쟁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잘 준비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현존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같이 굶고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해야 할 일들을 거들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같이 대처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물자 지원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친구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개척자들은 전쟁도, 군대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국제적 반전 평화 운동가를 양성해 오기도 했다.

제주에서 세계평화대학 강정캠퍼스를 열고 오키나와 타이완을 여행
선교와 섬김

하며 섬들이 처한 정치 군사적 위기와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연대하는 '피스 파인더' 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바다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소양과 세일링 요트 조종 기술 등을 익히는 '피스 보이저'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제적 분쟁 지역에서 반전 평화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신학과 윤리를 연구하는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과정을 신설했다.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함께한 해초도 제주에서 개척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해초는 중학생 시절 강정마을 평화학교에 참석해 송강호 박사를 처음 만났고, 성인이 된 후 2022년 피스 보이저 1기 과정을 수료한 후 2023년 송강호 박사와 함께 공평해 항해에 나섰다. 송 박사는 항해를 함께한 해초를 두고 "한번도 배 멀미하지 않은 강인한 친구"라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초는 배를 타고 가자로 향했다. 개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단체이지만,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다. 해초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다. 송 박사는 해초가 피스 보이저 과정을 밟고 가자 항해 선단에 오른 이유는 종교가 아닌 '인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중략) 이어 송강호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항해 중, 해초는 최초로 선단에 오른 한국인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해초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 체면을 그나마 지켰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마당에 세금을 이야기하며 질책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초를 시작으로, 개척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날 예정이다. (중략)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전쟁도,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는 그 묵시를 얘기한 선지자의 시대에 실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기억하며 이어 가고 있다. 2000년 전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적어도 1000년 정도는 이어 갈 동료와 후배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것은 나의 생애를 넘어 개척자들이 계속 기억하는 꿈이 됐으면 좋겠다."

출처 : 뉴스앤조이 2025년 11월 12일 엠태빈기자

한주간의 말씀

“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20, 484 / 510

기도 : 나송주 집사

성경 : 사사기 19장

제목 : 이스라엘 왕이 없던 때의 기브아 사건

1.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하였다
해석: 왕(지도자)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지 않게 된다.
적용: 자기 뜻대로 살지 말자.

2. 한 레위 남자의 이야기(첩을 찾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베냐민)에
머문) 이방인 지역보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역에 머물고자 했다.
해석: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불량배)은 이방민
족보다 못한 삶으로 죄를 짓게 된다.
적용: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3.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반인륜적 사건의 해결방법
해석: 왕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파들
이 함께 의논하고 일의 해결방법은 지파간의 전쟁이었다.
적용: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지도자를 따르자.

성서일기

청년의 기도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해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둔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기도>(손경민) 중 가사 발췌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45 : 1-5
3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1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

이사야서 65 : 17-25
183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7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정혜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저희들이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

깨어진 세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참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벽과 터전을 바라보며 깊은 질문에 잠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러나 지금도 깨어진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창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압도적인 은총으로 덮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무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식사를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우리 집 김장

해마다 돌아오는 김장. 올해도 돌아왔구나!

공동체 김장이 끝나면 바로 우리 집 김장이 시작된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김장은 참여하지 못했다.

종류별로 깍두기, 석박지, 쪽파김치, 알타리, 무청김치, 찌개용 우거지김치, 동치미, 배추김치(절임배추 120kg), 백김치 등등. 달력을 펼치고 다른 일정들과 체력을 염두에 두고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밑 손질 할 것까지 생각해서 순서대로 주문하고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하고 재료들이 도착하는 대로 만들어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김장이 끝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린다.

내 김치를 기다리는 식구들이 여럿이다. 겨우내 김치만 파먹느라 제일 많은 양을 가져가는 동생, 한나, 시어머님, 그리고 나누고 싶은 몇몇 분들. 동생과 한나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내 대답은 단호히 '아니!' 집이 좁기도 하고 함께 하면 더 번거로우니 내 계획대로 혼자 여유롭게 하는 게 좋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하는 것이라 그리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동생의 요청대로 대부분 유기농으로 하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동생이 거의 부담을 해주니 나로서는 고맙기도 하다.

나는 양념을 아주 많이 만든다. 2배 정도 만들어서 반은 김장에 사용하고 반은 양념 채소 없이 500g씩 소분해서 냉동에 넣어두고 다음 김장까지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데 매 번 만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배추를 사는 것부터 고무장갑도 없이 절이고 씻어 김장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일 큰일인 절이고 씻는 게 생략되니 얼마나 편하던지! 지금은 땅에 묻은 김치를 먹지는 못하지만 그를 대신하는 김치냉장고가 있으니 문명의 발달에 또한 고맙기도 하다. 이번에도 내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기다리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아자! 아자!!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515장, 484장

성경 : 로마서 16:17-20

말씀 :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나이지리아 중앙부 및 북부, 특히 중부 벨트 지역에서 기독교인 마을·교회가 무장민병이나 극단주의 조직에 의해 반복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공동체가 안전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공동체 >

수해 복구의 마지막 정리가 잘 되어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일과 고된 노동으로 공동체 식구들이 지치거나 건강 해치지 않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황성자 사모님, 윤 산 청년

2) 꾸러기 졸업여행, 교회 수험생과 멋쟁이 6학년들의 수능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하반기 공동생활에서 가장 큰 일인 공동체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와 무, 파 등을 수확하는 일로 시작하여 다듬고 닦고 배추를 절이는 일까지 많은 손이 필요한 일입니다. 멋쟁이 학생들과 함께하니 수월하면서도 하나 하나 가르쳐야하니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절인 배추를 새벽에 뒤집고, 닦고 양념을 버무리기 까지 정말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큰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이제 든든합니다.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꿀꿀이반 두 명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곱 살 평생 처음'으로 차밭을 보고 녹차를 맛보더니 차 맛에 반했답니다. 성계국, 멜젓, 흑돼지, 옥돔, 보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주상절리, 수평절리, 산들과 섬들을 보았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좀 들이치고 흰 구름도 있지만 한라산과 주변 섬들은 아주 잘 보이는 맑은 날입니다. 해설을 듣고 인상 깊었던 곳들의 이름을 말하며 나중에 다시 와서 물때 때문에 잘 보지 못한 용머리해안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꽃자왈을 봅니다. 나무를 끌어안고 덩굴에 앉고 매달려봅니다. 아는 글자가 좀 있다고 곳곳에 있는 설명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걷다가 쓰레기를 주워들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짧은 산책을 하고 당근을 먹여주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걷는 것보다는 달리고 뛰는 걸 좋아하는 두 친구인데 천지연 폭포를 보고는 그 앞에서 한 동안 가만히 앉아 바라봅니다.

마음속 사진첩에 사진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숙소를 나서기 전 함께 기도를 합니다. 두 친구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이번주 어린이학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감!!!

독감과 감기로 네명의 친구들이 학교에 나오질 못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에는 두명의 친구는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보내와서 학부모회에까지 기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겨울이면 으레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강도가 더 큼니다. 결석이 많다고

배움과 가르침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침통할 수는 없지요. 어린이 오락관을 열어서 정말 많이 웃고 소리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빼빼로 양파링 옮기기는 떨어뜨려서 먹은게 더 많고, 4음절 이어말하기에서는 '겨울' 다음에 돌아온 말이 '웃' 이어서 배꼽빠지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스피드퀴즈도, 절대음감 놀이도 모두가 가슴 시원하게 웃을 일이 많았답니다. 이현숙선생님, 하경임선생님의 생일이 있어서 그 반마다 친구들이 얼마나 정성스레 축하파티를 준비했는지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힘주시고 새마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추수감사주일을 지나 멋쟁이들은 월요일에 등교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며 멋쟁이들의 종강 준비가 분주해졌습니다. 약기나 춤 연습,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이었지만, 공동심화학습 <APEC과 국제정세> 모의 회담 진행도 재미있게 진행하는 등, 수업 참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공동체 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확부터 김장의 모든 과정을 직접 손대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남학생들은 새벽에 배추를 뒤집고 씻겼으며, 여학생은 양념을 치고 버무리며 맛있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갓 만든 김치와 함께 먹는 점심식사는 기대 이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거기에 멋쟁이들은 금요일에 5학년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멋진 저녁을 먹고, 토요일에 있는 마라톤 대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달리며, 이제껏 갖고 담아온 실력을 뽐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작년의 기록을 단축하는 등 감격스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6학년은 가정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보았습니다. 긴 시간동안 노력해온 6학년이 자랑스럽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교사 : 이어진 >